

2026 한국 기업의 해외 소송 eDiscovery 실태조사 리포트

Published by Intellectual Data
October 2026

목차

01 조사 개요 p.3

- 조사 설계
- 응답자 특성

02 핵심 요약 p.6

- 핵심 요약

03 조사 결과 p.8

- 해외 소송·분쟁 대응 실태
- eDiscovery 경험 및 행태
- 정성 자유의견

04 전문가 의견 p.22

- 전문가 의견

PART 1

조사 개요

조사 설계의 목적·방법·표본 구성과 함께, 응답자 표본의 직무·기업 규모·산업·해외 진출 지역 특성을 정리함

1-1 조사 설계

1-2 응답자 특성

조사 설계

글로벌 진출 기업의 법무·컴플라이언스·지식재산 실무자 및 의사결정권자를 대상으로 한 정량 조사

조사 목적

한국 기업의 해외 소송·분쟁 및 eDiscovery 대응 현황을 정량적으로 파악

조사 방법

인텔렉추얼데이터, 리멤버 리서치 온라인 조사

조사 지역

대한민국 (해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진출 예정인 기업의 국내 소재지 기준)

조사 대상

해외 사업 영위 또는 진출 예정 기업의 법무·컴플라이언스·지식재산(IP) 실무자 및 의사결정권자

* 본 조사는 응답자 개인 단위로 수집되었으며, 동일 기업의 복수 응답이 포함되었을 수 있음

표본 규모

148명

* 로펌·특허법인 종사자 참고 데이터 n=14 별도 수집 (주요 슬라이드에 참고 메모로 표기, 인텔렉추얼데이터 수집)

조사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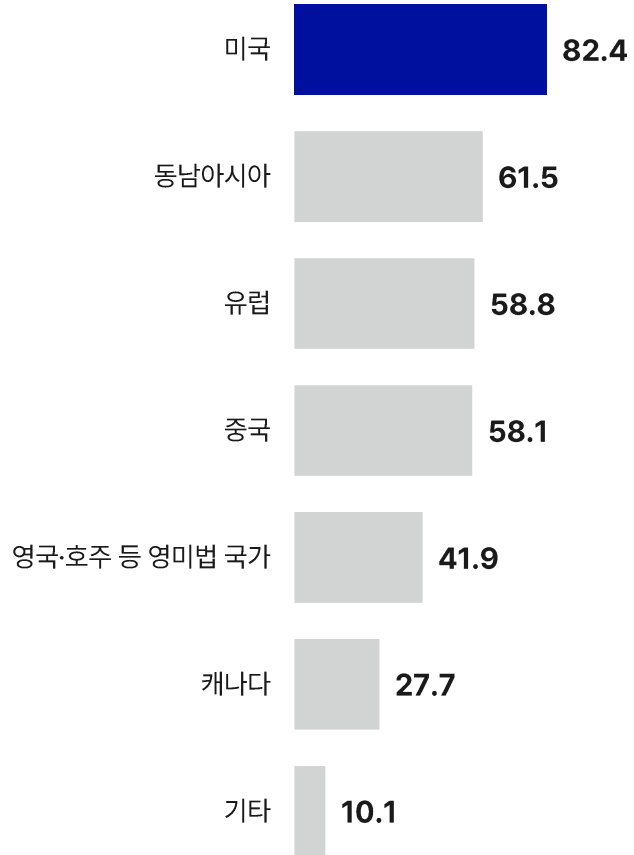
2026년 4월~5월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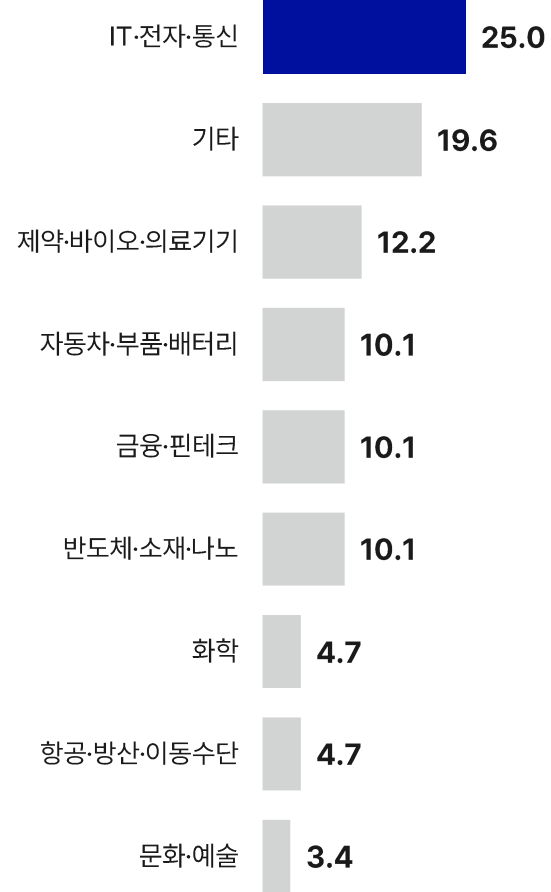
대기업 및 미국 진출 기업 소속 응답자가 표본의 핵심을 구성

Base: 전체 응답자, n=148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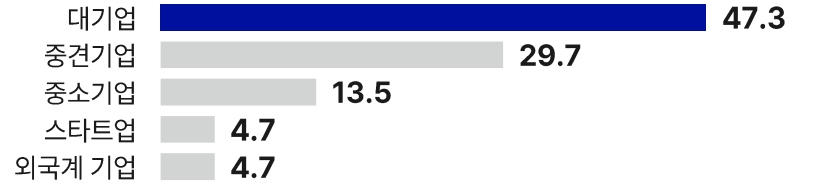
주요 해외 진출 지역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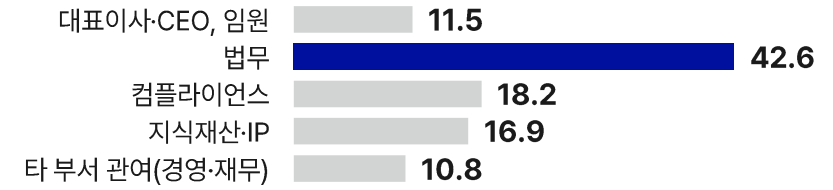
산업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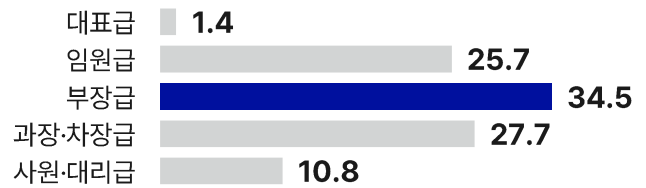
기업 규모



직무



직급



PART 2

핵심 요약

조사 전반의 핵심 결과를 한 페이지로 압축하여 제시함

SUMMARY

01

해외 소송·분쟁 유형으로는 지식재산권·계약 분쟁 비중이 높고, 대응 과정에서는 비용과 예측 가능성 부담이 나타남

최근 3년 내 경험했거나 향후 가능성이 높은 해외 소송·분쟁 유형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쟁(57.4%)**과 **계약 위반·손해배상(54.7%)** 응답이 가장 높았고, 대응 과정의 어려움으로는 **비용 예측 어려움·예산 확보 부담(60.8%)**, **소송 성패 예측의 어려움(50.0%)**, **해외 소송 경험 부족(43.9%)**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02

eDiscovery 유경험률은 대기업에서 높게 나타남

전체 응답자의 29.7%가 소속 기업에 eDiscovery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비율은 **대기업 소속 응답자(38.6%)**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차분석 결과, 소속 기업의 최근 3년간 해외 소송·분쟁 건수가 많다고 응답할수록 소속 기업의 eDiscovery 유경험 응답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소속 기업의 해외 소송·분쟁 건수를 5회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 eDiscovery 유경험 응답률은 61.5%**였습니다.

03

eDiscovery 내 AI 활용의 주요 기대효과는 비용 절감 및 기간 단축으로 조사됨

eDiscovery에서 AI 활용 시 기대 효과로는 **비용 절감(64.2%)**과 **기간 단축(57.4%)**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는 정확도 향상(25.7%), 전략 지원(23.6%), 리스크 관리(14.2%) 순으로 나타나, 품질 향상(정확도 등)보다는 업무 효율성(비용 및 기간) 개선 항목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PART 3

조사 결과

해외 소송·분쟁 대응 실태부터 eDiscovery 경험·행태, 정성 자유의견까지 문항별 상세 분석을 제시함

3-1 해외 소송·분쟁 대응 실태 (분쟁 건수 · 분쟁 유형 · 로펌 선임 · 애로사항 · 정보 채널)

3-2 eDiscovery 경험 및 행태 (유경험률 · 위탁 서비스 · 교차 분석 · 계약 구조 · AI 기대)

3-3 정성 자유의견

분쟁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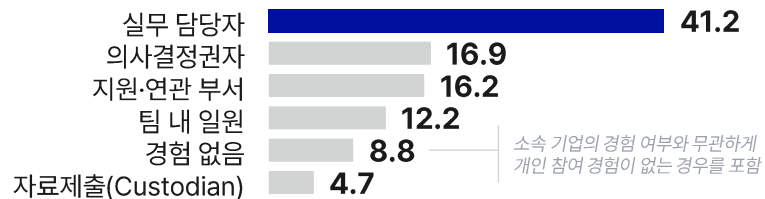
해외 소송·분쟁 경험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그 빈도가 높게 나타남

KEY FI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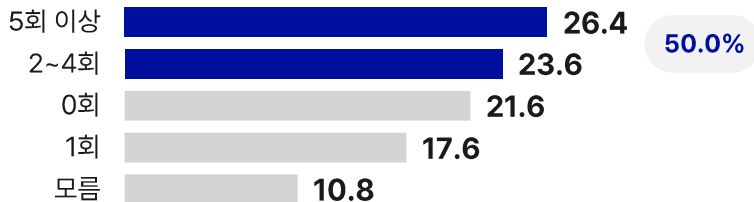
- **대기업의 다빈도 해외 소송·분쟁 경험** : 전체 응답자의 50.0%가 소속 기업의 최근 3년간 해외 소송·분쟁 건수를 '2회 이상'으로 응답했으며, 특히 대기업군에서 '5회 이상' 경험 비율이 44.3%로 타 기업 규모 대비 높게 조사됨
- **중견기업의 해외 소송·분쟁 경험 분산** : 중견기업은 해외 소송·분쟁 경험 '0회'(27.3%)와 '2~4회'(34.1%) 응답 비율이 각각 높게 나타남

Base: 전체 응답자, n=148, 단위: %, 단수응답

응답자 개인의 해외 소송·분쟁 대응 업무 경험 형태



최근 3년간 소속 기업의 해외 소송·분쟁 건수



기업 규모별 최근 3년간 해외 소송·분쟁 건수 분포

구분	(n)	0회	1회	2~4회	5회 이상	모름
전체	(148)	21.6	17.6	23.6	26.4	10.8
기업규모별						
대기업	(70)	7.1	15.7	20.0	44.3	12.9
중견기업	(44)	27.3	18.2	34.1	9.1	11.4
중소기업 *	(20)	35.0	25.0	25.0	15.0	0.0
스타트업 *	(7)	71.4	0.0	14.3	0.0	14.3
외국계 기업 *	(7)	42.9	28.6	0.0	14.3	14.3

* 전체(Total) 대비 +3.3%p 이상 Blue Font, -3.3%p 이하 Red Font 강조 · n<30 세그먼트(*) 해석 시 유의

Q. 귀하는 해외 소송·분쟁 대응 업무 경험이 있으십니까?
Q. 최근 3년간 귀사(소속 기업)의 해외 소송·분쟁은 약 몇 건입니까? 귀하의 담당 업무와 무관하게, 귀사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분쟁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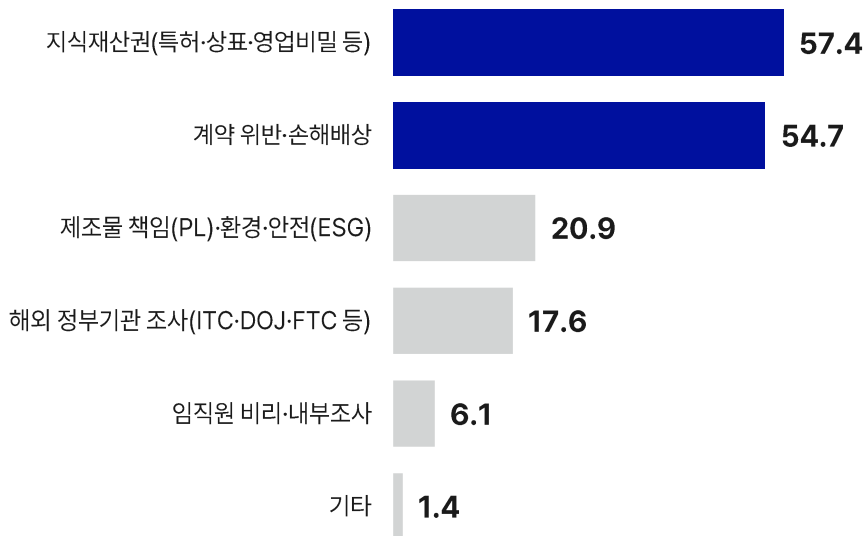
해외 소송·분쟁 유형으로는 지식재산권(IP)과 계약 위반·손해배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KEY FINDINGS

- **주요 해외 소송·분쟁 유형** : 지식재산권(IP) 분쟁(57.4%)과 계약 위반·손해배상(54.7%)이 전체 응답의 과반으로 높게 조사됨
- **산업군별 주요 해외 소송·분쟁 유형** : IT·전자·통신 산업의 지식재산권(IP) 분쟁 비중은 70.3%로 전체 평균(57.4%) 대비 높음
반도체·소재·나노 산업은 IP 분쟁 비중이 93.3%인 반면, 계약 위반·손해배상 비중은 26.7%로 나타남

Base: 전체 응답자, n=148, 단위: %, 복수응답(최대 2개)

최근 3년 내 경험했거나 향후 가능성이 높은 해외 소송·분쟁 유형(최대 2개)



산업군·직무별 해외 소송·분쟁 유형 분포

구분	(n)	지식재산권(IP)	계약 위반·손해배상	PL·환경·안전(ESG)	해외 정부기관 조사	임직원 비리·내부조사	기타
전체	(148)	57.4	54.7	20.9	17.6	6.1	1.4
산업군별							
IT·전자·통신	(37)	70.3	51.4	24.3	18.9	5.4	2.7
반도체·소재·나노 *	(15)	93.3	26.7	6.7	20.0	0.0	0.0
제약·바이오·의료기기 *	(18)	72.2	44.4	11.1	16.7	0.0	0.0
항공·방산·이동수단 *	(7)	14.3	85.7	42.9	14.3	14.3	0.0
금융·핀테크 *	(15)	0.0	73.3	13.3	13.3	20.0	0.0
자동차·부품·배터리 *	(15)	60.0	33.3	53.3	26.7	0.0	0.0
화학 *	(7)	57.1	42.9	14.3	42.9	0.0	0.0
문화·예술 *	(5)	60.0	80.0	0.0	0.0	20.0	0.0
기타 *	(29)	51.7	72.4	17.2	10.3	6.9	3.4
직무별							
CEO·임원(C레벨) *	(17)	70.6	58.8	5.9	11.8	5.9	0.0
법무(사내변호사·국제법무)	(63)	47.6	65.1	17.5	23.8	3.2	1.6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	(27)	33.3	51.9	37.0	18.5	22.2	3.7
지식재산·IP(특허·소송) *	(25)	100.0	16.0	12.0	12.0	0.0	0.0
타 부서 관여(경영·재무) *	(16)	56.2	75.0	37.5	6.2	0.0	0.0

* 전체(Total) 대비 +3.3%p 이상 Blue Font, -3.3%p 이하 Red Font 강조 · n<30 세그먼트(*) 해석 시 유의

Q. 귀사(소속 기업)가 최근 3년 내 경험했거나 향후 가능성이 높은 해외 소송·분쟁 유형을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로펌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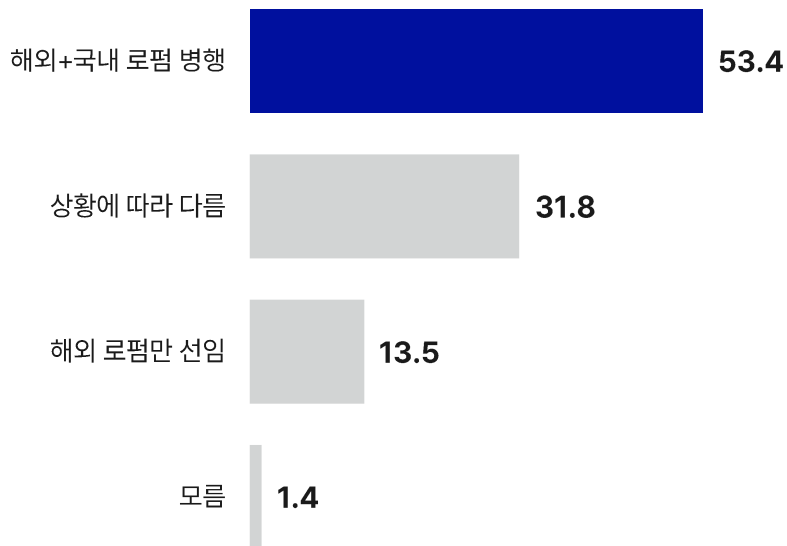
해외 소송·분쟁 대응 시 로펌 선임 방식은 해외+국내 병행이 과반

KEY FINDINGS

- **로펌 선임 행태**: '해외+국내 로펌 병행' 응답이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황에 따라 다름'(31.8%), '해외 로펌만 선임'(13.5%) 순으로 조사됨
- **직무별 응답 차이**: 지식재산·IP(64.0%), 컴플라이언스(63.0%) 직무에서는 '해외+국내 로펌 병행'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CEO·임원(C레벨) 직무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름'이 64.7%로 타 직무 및 전체 평균 대비 높았음
- **[교차 분석 1] 로펌 선임 형태별 eDiscovery 유경험률 (p15)**: 로펌 선임 형태별로 보면, eDiscovery 유경험률은 '해외 로펌만 선임'에서 60.0%로 높고, '해외+국내 병행'에서 30.4%, '상황에 따라 다름'에서 17.0%로, 로펌 선임 형태에 따라 eDiscovery 유경험률 차이가 나타남
- **[교차 분석 2] 최근 3년 해외 소송·분쟁 건수별 (p9) 로펌 선임 형태**: 소속 기업의 최근 3년간 해외 소송·분쟁 건수를 0회로 응답한 경우에는 로펌 선임 형태로 '상황에 따라 다름'이 56.2%로 가장 높았으며, 5회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 '해외 로펌만 선임' 응답률은 33.3%로, 4회 이하로 응답한 경우(2.9~11.5%)보다 높게 나타남

Base: 전체 응답자, n=148, 단위: %, 단수응답

해외 소송·분쟁 대응 시 로펌 선임 방식



직무별 해외 소송·분쟁 대응 시 로펌 선임 방식 분포

구분	(n)	해외+국내 로펌 병행	상황에 따라 다름	해외 로펌만 선임	모름
전체	(148)	53.4	31.8	13.5	1.4
직무별					
CEO·임원(C레벨) *	(17)	35.3	64.7	0.0	0.0
법무(사내변호사·국제법무)	(63)	49.2	28.6	20.6	1.6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	(27)	63.0	33.3	3.7	0.0
지식재산·IP(특허·소송) *	(25)	64.0	12.0	24.0	0.0
타 부서 관여(경영·재무) *	(16)	56.2	37.5	0.0	6.2

* 전체(Total) 대비 +3.3%p 이상 Blue Font, -3.3%p 이하 Red Font 강조 · n<30 세그먼트(*) 해석 시 유의

Q. 귀사(소속 기업)는 해외 소송·분쟁 대응 시 로펌을 어떻게 선임하십니까?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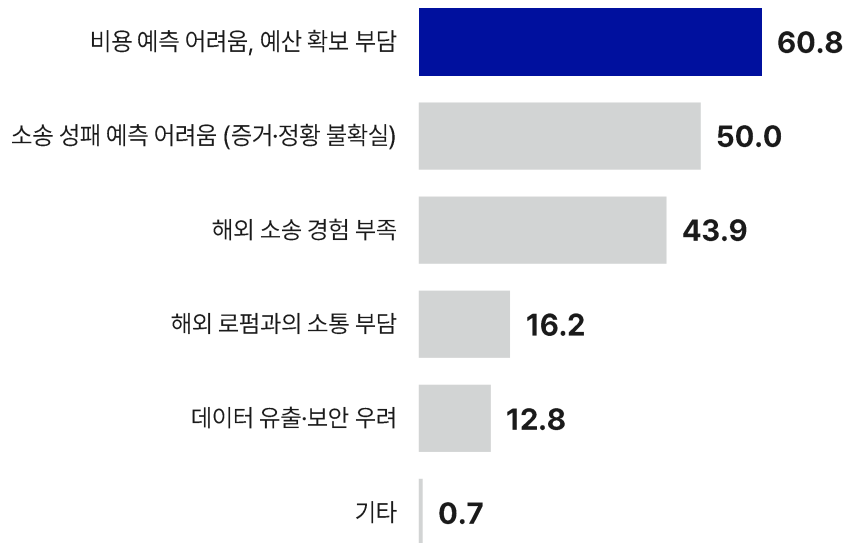
해외 소송·분쟁 대응 시 어려움으로, 비용 예측·예산 확보 및 소송 성패 예측의 어려움이 높게 조사됨

KEY FINDINGS

- **주요 애로사항**: '비용 예측 어려움·예산 확보 부담' 응답이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송 성패 예측 어려움'(50.0%), '해외 소송 경험 부족'(43.9%) 순으로 조사됨
- **직무별 응답 차이**: 법무 직무는 '비용 예측 어려움·예산 확보 부담(71.4%)'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타 부서 관여(경영·재무) 직무는 '데이터 유출·보안 우려(50.0%)' 응답이 전체 평균(12.8%) 대비 높게 나타남
- **[교차 분석] 최근 3년 해외 소송·분쟁 건수별 (p9) 애로 사항**: '비용 예측 어려움·예산 확보 부담' 응답률은 해외 소송·분쟁 0회 기업 소속 응답자 중 59.4%, 1회 57.7%, 2~4회 57.1%, 5회 이상 69.2%로, 모든 해외 소송·분쟁 건수 구간에서 높게 나타남

Base: 전체 응답자, n=148, 단위: %, 복수응답(최대 2개)

해외 소송·분쟁 대응 시 어려움(최대 2개)



직무별 해외 소송·분쟁 대응 어려움 분포

로펌·특허법인 종사자 참고 응답(n=14)에서도 '비용 예측·예산 부담'을 애로사항으로 꼽은 비율이 71.4%로, 전체 응답자(60.8%)보다 높게 나타남

구분	(n)	비용 예측·예산 부담	성패 예측 어려움	해외 소송 경험 부족	해외 로펌 소통 부담	데이터 유출·보안 우려	기타
전체	(148)	60.8	50.0	43.9	16.2	12.8	0.7
직무별							
CEO·임원(C레벨) *	(17)	58.8	58.8	35.3	23.5	5.9	5.9
법무(사내변호사·국제법무)	(63)	71.4	52.4	38.1	12.7	6.3	0.0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	(27)	40.7	59.3	51.9	7.4	14.8	0.0
지식재산·IP(특허·소송) *	(25)	64.0	44.0	44.0	32.0	8.0	0.0
타 부서 관여(경영·재무) *	(16)	50.0	25.0	62.5	12.5	50.0	0.0

* 전체(Total) 대비 +3.3%p 이상 Blue Font, -3.3%p 이하 Red Font 강조 · n<30 세그먼트(*) 해석 시 유의

Q. 해외 소송·분쟁 대응 시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정보 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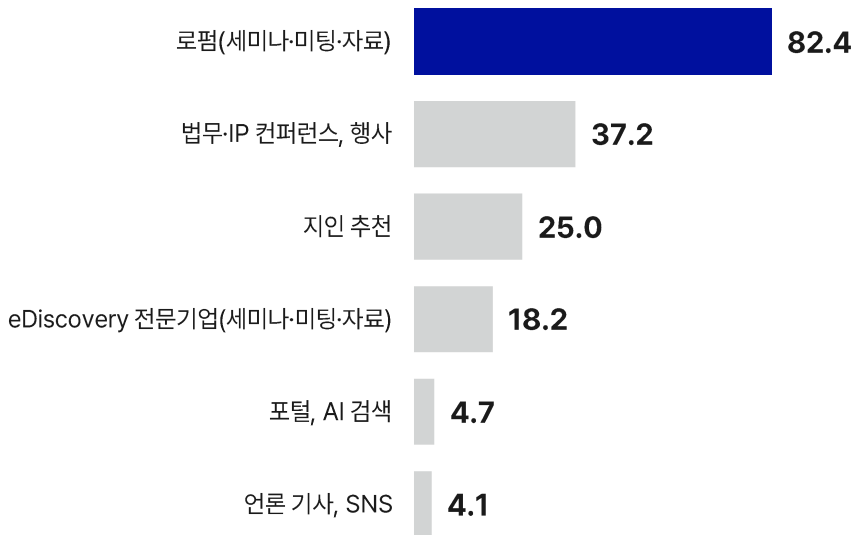
해외 소송·분쟁 관련 정보의 신뢰 채널로 '로펌'이 가장 높고, '컨퍼런스·행사' 및 '지인 추천'이 뒤를 이음

KEY FINDINGS

- 주요 해외 소송·분쟁 정보 신뢰 채널 : '로펌' 응답 비율이 82.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컨퍼런스·행사'(37.2%), '지인 추천'(25.0%) 순으로 나타남
- 직무별 응답 차이 : 지식재산·IP 직무는 '로펌'(92.0%) 및 '컨퍼런스·행사'(56.0%)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CEO·임원(C레벨)은 '지인 추천'(35.3%) 응답이 타 직무 대비 높게 나타남

Base: 전체 응답자, n=148, 단위: %, 복수응답(최대 2개)

해외 소송·분쟁 관련 정보 신뢰 채널(최대 2개)



직무별 해외 소송·분쟁 정보 신뢰 채널 분포

구분	(n)	로펌	컨퍼런스·행사	지인 추천	eDiscovery 전문기업	포털·AI 검색	언론·SNS
전체	(148)	82.4	37.2	25.0	18.2	4.7	4.1
직무별							
CEO·임원(C레벨) *	(17)	70.6	23.5	35.3	23.5	5.9	5.9
법무(사내변호사·국제법무)	(63)	85.7	28.6	30.2	17.5	6.3	3.2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	(27)	74.1	48.1	25.9	22.2	0.0	3.7
지식재산·IP(특허·소송) *	(25)	92.0	56.0	12.0	12.0	0.0	8.0
타 부서 관여(경영·재무) *	(16)	81.2	37.5	12.5	18.8	12.5	0.0

* 전체(Total) 대비 +3.3%p 이상 Blue Font, -3.3%p 이하 Red Font 강조 · n<30 세그먼트(*) 해석 시 유의

Q. 해외 소송·분쟁 관련 정보를 신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PART 3

조사 결과

해외 소송·분쟁 대응 실태부터 eDiscovery 경험·행태, 정성 자유의견까지 문항별 상세 분석을 제시함

- 3-1 해외 소송·분쟁 대응 실태 (분쟁 건수 · 분쟁 유형 · 로펌 선임 · 애로사항 · 정보 채널)
- 3-2 **eDiscovery 경험 및 행태 (유경험률 · 위탁 서비스 · 교차 분석 · 계약 구조 · AI 기대)**
- 3-3 정성 자유의견

유경험률 ·
위탁 서비스

eDiscovery 경험은 대기업에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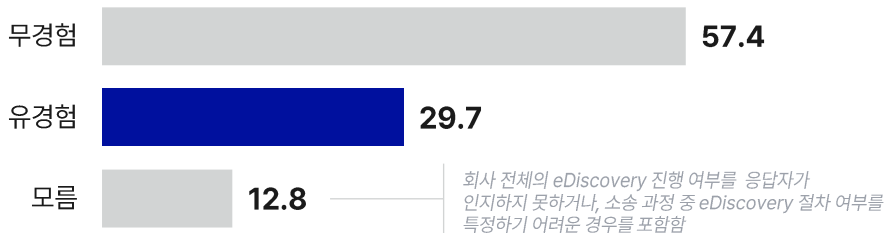
KEY FINDINGS

- **소속 기업의 eDiscovery 경험·위탁 행태** : 전체 응답자의 29.7%가 소속 기업에 eDiscovery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eDiscovery 전문 회사 위탁 서비스 중에서는 ‘eDiscovery 전체 또는 일부’(22.3%)와 ‘1차 문서 리뷰’(18.2%) 이용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업 규모별 eDiscovery 경험 분포** : 외국계 기업(42.9%)과 대기업(38.6%)의 eDiscovery 유경험률이 비교적 높은 반면, 스타트업(14.3%)과 중소기업(15.0%)은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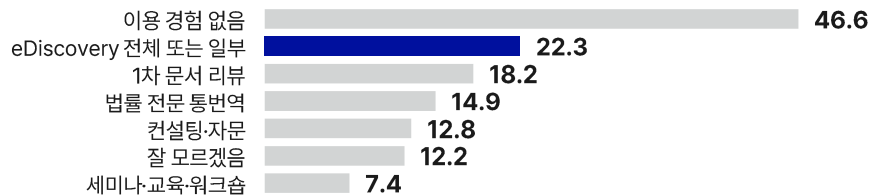
eDiscovery 경험 여부는 기간 제한 없음
Base: 전체 응답자 n=148, 단위: %, 단수응답(eDiscovery 경험여부), 복수응답(위탁 서비스 이용현황)

소속 기업의 eDiscovery 경험 여부

eDiscovery는 미국 민사소송·정부기관 조사, 영미법 국가 소송 등에서 주로 요구되는 절차로, 모든 해외 소송·분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eDiscovery 전문 회사 위탁 서비스 이용 현황(복수 응답)



기업 규모별 eDiscovery 경험 여부 분포

구분	(n)	유경험	무경험	모름
전체	(148)	29.7	57.4	12.8
기업규모별				
대기업	(70)	38.6	45.7	15.7
중견기업	(44)	22.7	65.9	11.4
중소기업 *	(20)	15.0	80.0	5.0
스타트업 *	(7)	14.3	85.7	0.0
외국계 기업 *	(7)	42.9	28.6	28.6

* 전체(Total) 대비 +3.3%p 이상 Blue Font, -3.3%p 이하 Red Font 강조 · n<30 세그먼트(*) 해석 시 유의

Q. 귀사(소속 기업)는 eDiscovery 경험이 있으십니까?
Q. 귀사(소속 기업)의 eDiscovery 진행 과정에서, 자체 또는 로펌 외에 ‘eDiscovery 전문 회사’를 통해 이용해 본 서비스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교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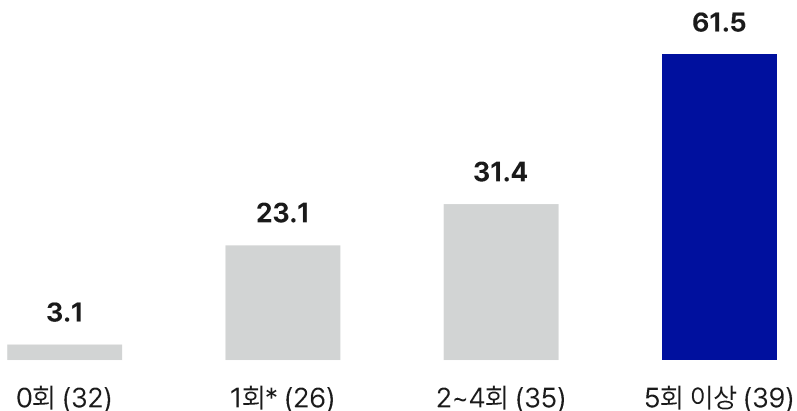
eDiscovery 유경험률은 해외 소송·분쟁 건수와 분쟁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임

KEY FI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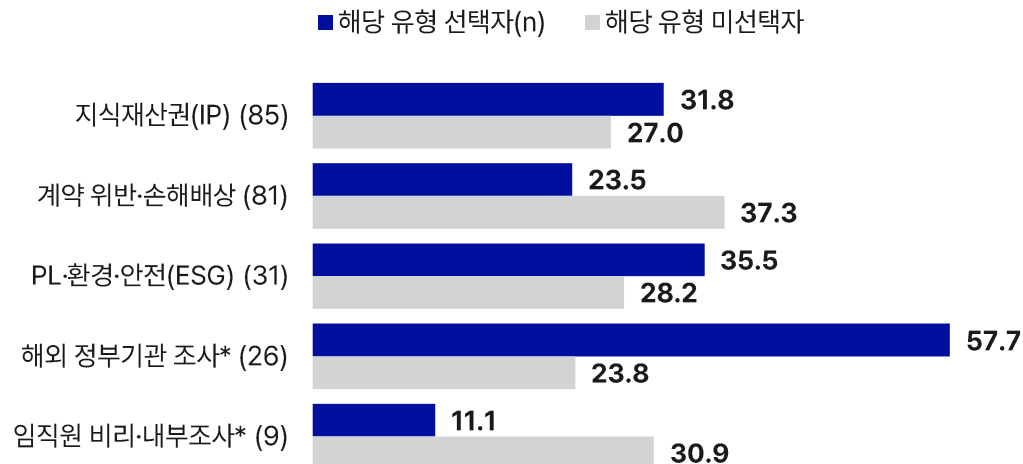
- **[교차 분석] 최근 3년 해외 소송·분쟁 건수별(p9) eDiscovery 경험** : eDiscovery 유경험률은 소속 기업의 해외 소송·분쟁 건수를 0회로 응답한 경우 3.1%, 1회 23.1%, 2~4회 31.4%, 5회 이상 61.5%로 나타나, 해외 소송·분쟁 건수가 많을수록 eDiscovery 유경험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교차 분석] 해외 소송·분쟁 유형별(p10) eDiscovery 경험** : 해외 정부기관 조사 선택자 중 57.7%가 소속 기업에 eDiscovery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미선택자(23.8%)보다 33.9%p 높음. 반면 IP 분쟁 선택자(31.8%)와 미선택자(27.0%) 간 차이는 크지 않음

해외 소송·분쟁 건수는 최근 3년 기준, eDiscovery 경험 여부는 기간 제한 없음
Base: 전체 응답자 n=148, 단위: % (건수별 분석은 '잘 모르겠음' n=16 제외)

최근 3년 해외 소송·분쟁 건수별 eDiscovery 유경험률(%)



해외 소송·분쟁 유형(최대 2개) 선택 여부별 eDiscovery 유경험률(%)



* 괄호 안은 응답자 수(n) · n<30 세그먼트(*) 해석 시 유의

Q. 최근 3년간 귀사(소속 기업)의 해외 소송·분쟁은 약 몇 건입니까?
Q. 귀사가 최근 3년 내 경험했거나 향후 가능성이 높은 해외 소송·분쟁 유형을 최대 2개까지 선택해주세요.
Q. 귀사(소속 기업)는 eDiscovery 경험이 있으십니까?

계약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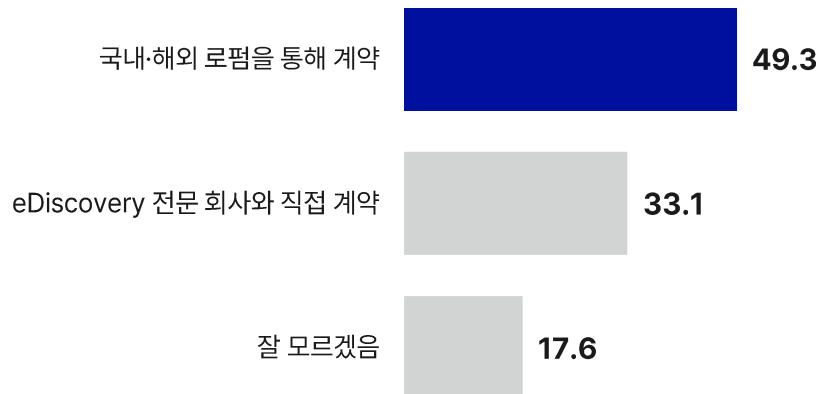
eDiscovery 진행 시 선호하는 계약 방식은 '국내·해외 로펌을 통해 계약'이 가장 높게 나타남

KEY FINDINGS

- **eDiscovery 진행 시 선호 계약 방식**: '국내·해외 로펌을 통해 계약' 응답이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eDiscovery 전문 회사와 직접 계약' 응답은 33.1%로 조사됨
- **기업 규모별 응답 차이**: 중소기업 그룹에서는 'eDiscovery 전문 회사와 직접 계약' 응답 비율(45.0%)이 타 기업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Base: 전체 응답자, n=148, 단위: %, 단수응답

eDiscovery 진행 시 선호하는 계약 방식



기업 규모별 eDiscovery 진행 시 선호 계약 방식 분포

구분	(n)	국내·해외 로펌을 통해 계약	eDiscovery 전문 회사와 직접 계약	잘 모르겠음
전체	(148)	49.3	33.1	17.6
기업규모별				
대기업	(70)	52.9	28.6	18.6
중견기업	(44)	47.7	34.1	18.2
중소기업 *	(20)	40.0	45.0	15.0
스타트업 *	(7)	42.9	28.6	28.6
외국계 기업 *	(7)	57.1	42.9	0.0

* 전체(Total) 대비 +3.3%p 이상 Blue Font, -3.3%p 이하 Red Font 강조 · n<30 세그먼트(*) 해석 시 유의

Q. eDiscovery 진행 시 선호하는 계약 방식은 무엇입니까?

AI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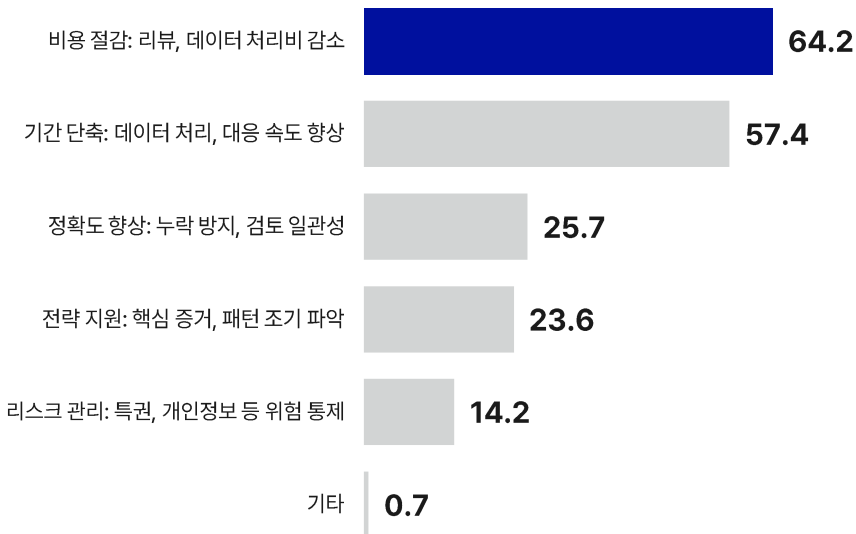
eDiscovery에서 AI 활용 시 주요 기대 효과로 '비용 절감' 및 '기간 단축'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KEY FINDINGS

- eDiscovery에서 AI 활용 시 기대 효과: 전체 응답자의 64.2%가 '비용 절감', 57.4%가 '기간 단축'을 선택하여 타 항목 대비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소속 기업의 eDiscovery 경험 여부별 차이: 소속 기업에 eDiscovery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비용 절감' 응답 비율은 75.0%로, 전체 평균(64.2%) 대비 10.8%p 높게 조사됨

Base: 전체 응답자, n=148, 단위: %, 복수응답(최대 2개)

eDiscovery에서 AI 활용 시 기대 효과(최대 2개)



eDiscovery 경험별 AI 활용 시 기대 효과 분포

로펌·특허법인 종사자 참고 응답(n=14)에서는 '정확도 향상'을 꼽은 비율이 35.7%로, 전체 응답자(25.7%) 대비 높게 나타남

구분	(n)	비용 절감: 리뷰, 데이터 처리비 감소	기간 단축: 데이터 처리, 대응 속도 향상	정확도 향상: 누락 방지, 검토 일관성	전략 지원: 핵심 증거, 패턴 조기 파악	리스크 관리: 특권, 개인정보 등 위험 통제	기타
전체	(148)	64.2	57.4	25.7	23.6	14.2	0.7
eDiscovery 경험별							
유경험	(44)	75.0	50.0	31.8	18.2	4.5	0.0
무경험	(85)	60.0	60.0	22.4	28.2	16.5	1.2
모름 *	(19)	57.9	63.2	26.3	15.8	26.3	0.0

* 전체(Total) 대비 +3.3%p 이상 Blue Font, -3.3%p 이하 Red Font 강조 · n<30 세그먼트(*) 해석 시 유의

Q. eDiscovery에서 AI 활용 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PART 3

조사 결과

해외 소송·분쟁 대응 실태부터 eDiscovery 경험·행태, 정성 자유의견까지 문항별 상세 분석을 제시함

3-1 해외 소송·분쟁 대응 실태 (분쟁 건수 · 분쟁 유형 · 로펌 선임 · 애로사항 · 정보 채널)

3-2 eDiscovery 경험 및 행태 (유경험률 · 위탁 서비스 · 교차 분석 · 계약 구조 · AI 기대)

3-3 정성 자유의견

정성 자유의견
(1/2)

해외 소송·분쟁 대응과 eDiscovery 관련 정성 자유의견으로, 전문성·실무 대응력과 비용 관련 의견 다수 확인됨

KEY FINDINGS

- **전문성, 실무 대응력**: 사전 대응 체계·전략 수립과 전문성 관련 의견이 확인됨
- **비용 부담**: 해외 소송 대응 시 비용 부담과 함께, 절감 방안·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보 요청이 확인됨

Base: 주관식 응답자, n=65, 정성 분석 및 키워드 그룹핑

① 전문성, 실무 대응력

- "디스커버리 자체가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 "돌발적인 변수가 많고 경험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음"
- "메신저 등 보관주기 짧은 데이터에 대한 긴급조치"
- "최근엔 전자기록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지는 게 필수적이니 이를 전문적으로 검토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듯"
- "각 관할 국가에 맞는 증거 개시 대응이나 방어 논리 전략을 잘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직은 미국 업체와 서비스 차이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 "초기부터 최적의 대응 방향 설정을 위한 전략적이며 입체적이고 전사적인 대응이 필요"
-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원합니다"
- "인사이트 있게 설명해주는 곳이 별로 없다"
- "전문성이 높게 요구됩니다"
- "정확한 법적 자문 지원"

② 비용 부담

- "해외에서 소송 당하는 국내기업에 비용이나 절차가 너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 "중소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너무 부담됩니다"
- "비용과 접근성 현실화. 활용 사례나 구체적인 효용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음"
- "이디스커버리 활용 시 확실한 비용절감 방안을 데이터와 사례를 들어 알고 싶네요"
- "비용 측면이나 영업비밀 관련 문서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투명한 서비스 가격 구조"
- "합리적인 비용 및 분야별 전문성 확보"
- "비용 현실화", "비용의 체계화"
- "비용을 낮춰달라", "저렴한비용"
- "합리적비용 및 업무 처리 속도, 커뮤 방법"

Q. 마지막으로, 해외 소송·분쟁 대응이나 eDiscovery를 경험하시면서 느낀 점, 업계에 바라는 점, 또는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남겨 주십시오.

정성 자유의견
(2/2)

해외 소송·분쟁 대응과 eDiscovery 관련 정성 자유의견으로, eDiscovery 활용 전망과 제도 관련 의견이 확인됨

KEY FINDINGS

- **eDiscovery 활용 전망**: 활용 확산에 대한 인식과, 정보·사례 공유 및 홍보 확대 관련 의견이 확인됨
- **기타 의견**: 국내 법제화 관련 의견이 확인됨

Base: 주관식 응답자, n=65, 정성 분석 및 키워드 그룹핑

③ eDiscovery 활용 전망

- "국내 업체의 해외 분쟁 해결에 적극 활용해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eDiscovery 활용이 증가되는 만큼 전문 업체의 활용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 "아직 경험은 없으나 사전에 파악한 바로는 책임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직까지는 없지만 향후 사정은 아직 예상할 수 없음"
- "관련 비즈니스 및 법제동향 등이 공유되면 자연스럽게 eDiscovery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생각"
- "샘플 페이퍼 또는 사례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국내에 널리 홍보되어서 쉽게 활용이 가능하면 좋겠다"
- "적극적 홍보가 필요해보입니다"

④ 기타 - 한국 제도 관련

- "한국에서도 eDiscovery 관련하여 신속한 법제화가 되길 바랍니다"
- "k-discovery를 잘 준비하세요"

Q. 마지막으로, 해외 소송·분쟁 대응이나 eDiscovery를 경험하시면서 느낀 점, 업계에 바라는 점, 또는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남겨 주십시오.

PART 4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eDiscovery,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전문가의 시각을 함께 살펴봄

전문가 의견

Georgia Foster | Relativity Managing Director and VP Sales, International

전 세계 여러 관할권에서 크로스보더 분쟁은 보다 체계적인 eDiscovery 대응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보고서는 정량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한국 기업의 경험과 당면 과제를 이해하기 위한 근거 기반의 참고 기준을 제시합니다. 한국 기업의 경우, eDiscovery 기술의 가치는 고도화된 기능을 실제 실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가장 잘 실현됩니다. 이러한 전문 지원에서는 한국어 데이터, 현지 데이터 관행, 그리고 조직이 운영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Across global jurisdictions, cross-border disputes often expose the need for a more structured eDiscovery response. This report provides quantitative insight and offers an evidence-based reference point for understanding the experiences and challenges faced by Korean companies. For Korean companies, the value of eDiscovery technology is best realized through specialist support that can translate sophisticated capabilities into practical execution, taking account of Korean-language data, local data practices and the way organizations operate.

이진수 | (전) 서울반도체 부사장

한국 기업의 글로벌 사업이 확대될수록 해외 소송과 eDiscovery는 대응 속도와 비용 통제, 데이터 관리 역량이 중요한 현실적 법률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법무·IP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는 비교 가능한 벤치마크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 기업의 현장 경험과 인식을 실무 데이터로 구체화해 이러한 정보의 공백을 메웠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비용 불확실성을 줄이는 실증 벤치마크를 제시하고, AI 리걸테크가 비용을 예측 가능한 구조로 변화시킬 여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향후 K-Discovery 환경에 대비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방어 체계를 검토하는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최승재 |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파트너 변호사

한국 지식재산청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소송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관련 전문성이 높은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서 인텔렉추얼데이터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About the Publisher

Intellectual Data

About the Publisher



인텔렉추얼데이터는 한국 기업의 미국 및 글로벌 소송·분쟁과 정부기관 조사에 필요한 eDiscovery를 수행하는 전문기업입니다.

The eDiscovery Standard

인텔렉추얼데이터는 국내 4대 그룹사를 포함한 다양한 국내 기업의 해외소송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보존·수집부터 처리·분석, 문서 리뷰, 제출까지 eDiscovery(전자증거개시제도) 전 과정을 수행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문 인력과 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cross-border litigation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700건+

미국·글로벌 eDiscovery
프로젝트 수행



Korea & U.S.

한국 본사, 미국 지사 및
한미 데이터센터 운영



End-to-End

eDiscovery
전 과정 수행

Core Capabilities

- **AI & Data Analytics** 대규모 소송 데이터 처리·분석과 AI 기반 문서 리뷰 기술을 실제 해외소송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리뷰 범위와 투입 시간 및 비용의 효율화를 지원합니다.
- **Security & Compliance** 국가핵심기술(NCT), 영업비밀 등 민감 데이터의 국내 호스팅 환경과 고객별 전용 환경을 제공하며, 관련 법령과 기업별 데이터·보안 요구사항을 반영합니다.
- **Cross-Border Operations** 한·영 이중언어 PM과 리뷰 인력, 한국 및 미국 현지 운영 기반을 통해 국내 기업과 해외 소송대리인 간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합니다.
- **Legal Support** 영어·한국어 문서 리뷰, 전문 번역, Deposition 통역 및 전용 소송 지원 시설을 통해 해외소송 실무를 지원합니다.

Corporate Milestones

2019년 설립 이후 eDiscovery 분야에 지속 투자해왔으며, 2026년 프론테오코리아 인수를 비롯해 한국 기업의 해외 소송 대응을 위한 전문 역량과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Publication Information & Contact

2026 한국 기업의 해외 소송 eDiscovery 실태조사 리포트

Published by Intellectual Data

Publication Date: October 2026

© 2026 Intellectual Data. All rights reserved.

Website www.intellectualdata.com

General Inquiries eDiscovery@intellectualdata.com | 02-6207-1122

본 보고서의 내용은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